

‘엄숙주의’와 대학의 생산성

金 雄 鎮

(韓國外大 政治外交學科)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는 기업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회가 필요로 하는 學問的 商品을 공급하지 못하는 대학은 문을 닫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처럼 문을 닫는 대학이 있어야 대학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고, 따라서 대학의 주력 생산품, 즉 연구저작과 졸업생의 질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원칙 혹은 남의 나라 사정일 뿐,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학들은 특과점체제에 힘입어 그다지 질이 좋지 못한 물건을 내 놓으면서도 망하지 않고 버텨 나가고 있다. 물론 아직 캠퍼스 내에는 순진함과 양심을 지닌 인사들이 적잖게 살아 남아있기 때문에 ‘대학발전’이라는 추상명제가 설득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大學 發展은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우리 대학인들 사이에 이루어져 있으며, 글쓴이도 물론 이에 동의한다. 따지고 보면 요즘 몇몇 사립대학을 뒤흔들어 놓은 부정입학 사건도 이처럼 고매한 ‘대학발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시설투자를 안 하고도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얼빠진 낭만주의자들이거나 합리적 사고의 능력을 상실한 고집불통의 이데올로그들일 것이다. 어쨌든 대학이 좋은 상품을 생산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특히 사립대학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돈을 마련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부정입학과 같이 목숨걸고 감행해야 하는 위험한 방법 이외에 재원조달의 방법이 전혀 없는가를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삼성이나 대우와 같은 대기업으로부터의 엄청난 기부금이나 혹은 정부보조금과 같은 깨끗한 돈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학교들은 서울대학교와 같이 이미 질 좋은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일부 우수대학들이기 때문에 논외로 해야 한다. 정작 돈 문제로 고통을 받는 것은 그저 그런 대학들, 작은 대학들인 것이다.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 대학인들이 쓸데없는 ‘엄숙주의’에 빠져 비록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대학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들을 애당초 생각해 내지 못하거나 혹은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주춤거리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과 같은 상황 아래에서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대학스러운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끌어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수들의 월급을 동결한다든가 도서관의 서적

구입비를 줄이는 따위의 소극적 방식보다는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 하더라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보탬이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 비단 돈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과정에서 지나친 형식주의와 업속주의가 적잖은 폐단을 가져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처럼 잡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사고방식의 전환을 슬며시 촉구하고 싶은 생각도 든다.

앞서 말했듯이 대학이 만들어 내어야 할 상품은 좋은 책과 논문, 그리고 좋은 학생이다. 즉, 大學教育의 목표가 연구와 교수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의 생산물은 당연히 연구와 교수라는 맥락에서 만들어지게 마련이라는 뜻이다. 우선 좋은 책과 논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좋은 책과 논문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잘 팔리는 책과 논문이다. 우리의 학문적 발전 수준은 적어도 필자가 공부하고 있는 정치학의 경우에는(물론 다른 학문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상당한 경지에 이르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소비자를 무시한 엉터리 책들은 설령 억지로 출간된다 해도 창고의 한 귀퉁이에 쌓여 공간낭비에 일조할 뿐이다. 그러나 좋은 책들은 계속 팔려나가 새로운 지식의 보급과 확산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책 만드는 사람에게 적지 않은 수입을 가져다 준다. 우리나라에 출판사가 얼마나 많은가? 또 그 가운데에서 좋은 책을 만들어 상당한 재미를 보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부분의 대학들은 출판부를 가지고 있어서 '××대학 논문집', '××대학 부설 ××연구소 논총' 등을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파문한 탓인지 대학출판부에서 나온 책들이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거나, 학문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다 못해 흔해 빠진 일간지나 주간지의 서평난에도 대학출판물은 별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학문의 주체인 대학의 출판물이 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대학당국이 출판부의 의미와 잠재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일 것이다. 대학이 연구의 총본산이라면 연구결과를 출간하는 출판부는 당연히 대학의 핵심적·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어떤 대학교수의 저작은 당연히 그 대학에 의해 출간되고 홍보되며 사회로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당연히 대학으로 환원되어 소위 '대학발전'에 투자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요즘처럼 책임용심사용 논문이나 자기 대학의 교양과정에 사용되는 독본 따위만을 그것도 가끔씩 출간하는 대학출판부는 있으나 마나 하며,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재정수입을 상실케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출판부는 당연히 전문편집인도, 원고심사위원회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급하게 적어내야 할 논문들을 원하는 대로 게재해 주는 공짜 미디어 서비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마련이다. 또 기왕 적은 책들을 팔려 해 보았자 아무도 사지 않는다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다. 물론 이는 출판부의 탓이 결코 아니다. 출판업무에 관련된 실무자치고 좋은 책을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정작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조금 구차스럽지만 남의 나라 예를 들어보자. 하버드대학 출판부나 캘리포니아대학 출판부 혹은 옥스포드대학 출판부에서 간행되는 서적들이 대단히 높은 수준의 저작들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들은 원고를 쉽게 접수하지 않을 뿐더러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받아들여진 원고들도 전문편집인의 손을 여러 번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지며, 일단 출간되면 학교의 명예를 걸머지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백 종의 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의 서가에도 이러한 대학출판물들이 적어도 두 세 종은 꼭혀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책들은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면서 학문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뿐더러 학교제정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돈을 벌어도 정말 멋드러지게, 대학스럽게 벌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학들도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독서시장에 파고 들어야 한다. 대학이 좋은 책을 만들어 사회에 보급하면서 돈을 번다는 데에 대해 시비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이렇게 될 때 '줄을 잡아야' 책을 적어 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된 출판풍토를 바로 잡는 데 대학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탄탄한 실력을 갖추었으면서도 출판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시간 강사들의 원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어 보급해야 한다. 출판부의 전문요원을 확대하여 훌륭한 기획과 마케팅을 통해 좋은 책을 열심히 만들어 많이 팔아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학교제정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다. 돈을 벌면서도 대학의 학문적 명예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당하게 돈 버는 방법은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요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대학의 경우, 교수들에게는 파킹 대차를 나누어 주어 무시로 캠퍼스를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반면 학생들은 차를 몰고 교내로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시건방져 보인다가, 가난한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준다거나 혹은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구실이 있는 모양이지만 이들은 모두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학교라는 위대한 상아탑으로 들어올 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옷깃을 여미며 심각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와야 한다는 발상은 쓸데없는 엄숙주의와 형식주의의 표본일 뿐이다. 동료 학생이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에 복받친 나머지 자기비하에 빠진다거나 울화가 치밀어 돌맹이를 집어던지는 학생이 있다면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성숙함을 지니지 못한 학생임에 틀림없다. 또 교통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왜 교수들의 자동차는 출입을 허락하는가? 교수들이 학생들보다 더 조심스러운 운전자라는 경험적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학교는 본질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고, 학문적인 경쟁의 전당이다. 이러한 학문적 경쟁에 요구되는 것은 효율성이지 공연한 形式主義는 아니라고 본다. 학생들이 차를 타고 오는 때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일 것이다. 통학이 편해서 일 수도 있고, 거드름을 부리기 위해서 일 수도 있고, 방과후에 남녀 학생이 어울려 놀러가기 위해서 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가 정작 해야 할 것은 왜 학생들이 차를 타고 등교하느냐의 이유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교내에 주차장과 안전시설을 확보한 후 주차비를 징수하는 일일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설득력을 잃게 될 구실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학교 캠퍼스에 걸맞는 주차시설을 구비하고 그에 따라 학생이건 교수이건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의 파킹 대차를 판매하여 학교제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은가?

嚴肅主義는 노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엄숙주의는 또한 권위주의의 소산이다. 실력 대학교수 혹은 대학생이라는 칭호가 사회적 신분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大學의 生産性이 높아지지 않는 한 이는 헛겜데기에 불과하다. 교수들은 벗어 붙이고 책과 컴퓨터와 자료와 씨름하여 잘 팔릴 수 있는 연구결과물들을 생산해야 한다. 또한 학교의 운영자들은 엄숙주의를 버리고 가능한 한 모든 정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적은 돈으로부터 큰 돈까지 일일이 끊어모아 교육투자를 함으로써 학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요컨대 지금은 보직싸움, 편짜기 싸움을 하면서 한가하게 지낼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푼이라도 대학담게 벌어 우리 캠퍼스를 가꾸어 나갈 때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대학인들을 오랫동안 사로잡아 온 공연한 엄숙주의의 족쇄를 깨뜨릴 필요가 있다. ■